

Digital Dentistry &

최 규 옥 / 트윈치과

바야흐로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치과계에도 Digital Dentistry가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의 치과진료와 산업을 이끌어갈 대세가 될 것입니다. 환자들은 전문가인 치과의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고, 임상경험이 많아서 환자마다 다른 구체적 증례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으며, 진료 스킬 또한 뛰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다 줄 분야가 바로 Digital Dentistry입니다.

Digital Dentistry는 치과의사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상의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는 3차원 디자인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출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험 많은 치과의사보다 더 좋은 치료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미 결손치아를 수복하는 임플란트와 교정치료 외에도 많은 치과치료 분야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결손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임플란트에서 디지털 치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현재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에서 치과의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 CT 영상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치과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치료결과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CT와 스캐너로 취득한 3차원 영상을 CAD로 디자인하고 밀링머신, 3D 프린터로 제작한 가이드를 사용하면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 올바른 방향, 필요한 길이에 맞춰 치과의사가 의도한 대로 식립할 수 있게 됩니다. 치과의사의 지식, 경험에 덜 의존하여 경험이 적은 치과의사라도 안심하고 수술할 수 있어서 좋고 경험 많은 치과의사의 경우에도 항상 예측 가능한 수술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는 치과의사에게도 좋고 수술 당일에 임시보철물까지 환자에게 장착할 수 있어서 환자에게도 더 좋은 치료방법입니다.

둘째로, 교정치료에서 디지털 치료는 점점 보편화되고 있고 실용적 단계에 있습니다. 디지털 교정치료를 하면 교정진단에 있어서 비록 치과의사의 지식과 경험이 적더라도 경험이 많은 치과의사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과정과 치료결과를 얻는데 있어서도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명교정장치를 만들어 사용하면 기존의 브라켓을 사용한 치료방법보다 환자의 불편감도 훨씬 적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치료기간도 짧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브라켓 교정에서도 치료계획을 미리 만들어 사용하면 투명교정치료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렇듯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많은 장점이 있는 디지털 진료를 보편화 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Digital Dentistry의 핵심인 Dental CAD SW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임플란트 분야의 OneGuide, 교정 분야는 OneOrtho를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적용한 CAD SW를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원 치의학 석사
-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 박사
- * 현, 오스템임플란트(주) 회장
트윈치과 대표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사